

도심서 누리는 ‘휴양지’ 사계절 빛깔로 물들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왕길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왕길역 도보권, 서울 9호선 직결 초·중·고 등 인근, 교육특화 단지 스타필드·코스트코, 인프라 다양

삼성물산 협업, 테마형 어드벤처 코끼리 등 함께하는 사파리월드 유럽식 로열 조경·조명 등 공간

최근 방문한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 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왕로푸)’, ‘로열파크씨티’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황금색의 거대한 아치형 모양으로 고급스러움을 자아냈다.

시행사DK아시아가 왕길역 일대에 계획 중인 로열파크씨티(리조트형 주거단지)의 시범 단지로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했다. 인천 2호선 왕길역이 도보권에 있고 서울 9호선 직결이 확정됐다.

서울 강남까지 약 40분대(검암역 환승, 급행 기준)의 쾌속 교통망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역 내에 왕길초, 검단중·고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등이 위치해 안심 교육환경이 조성됐다.

스타필드 청라와 코스트코 청라, 청라 의료복합타운 등도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특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로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총 1500세대의 대단지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9㎡A·B ▲74㎡A·B ▲84㎡A·B·C ▲99㎡로 구성됐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1차형 동배치를 통해 모든 세대가 맞통풍 구조, 판상형,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모든 타입에서 4베이(BAY·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수) 구조에 방 3개, 우물전정 등으로 설계돼 개방감이 느껴진다.

삼성물산리조트부문의 협업으로 버랜드를 담은 액티비티 어드벤처도 눈에 띈다. ‘사파리월드’에서는 코끼리와 코뿔소가 떼지어 살고 있는 대자연의 암벽과 코끼리협곡 사이 숨어 있는 동물이 상상력을 키워준다.

물대포와 파도를 헤쳐나가며 모험심을 키우는 ‘캐리비안베이’, 동화속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알록달록한 환상의 나라 ‘이슈 빌리지’ 등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동심도 깨워준다.

유럽을 담은 품격있는 로열조경과 조명도 돋보였다. ‘로열파크베이’에서는 다채로운 조명과 물소리로 가득한 로맨틱한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다. ‘퀸즈가든’에서는 유럽 왕실에서 볼 수 있는 고풍스러운 분수대와 세밀한 자수화단, 장미원 등 이색적인 풍경도 공유한다.

노블레스를 위한 커뮤니티가 조성돼 6성급 로열 티하우스를 만나볼 수 있다. 감성의 클래스를 높여주는 국내 최장 길이의 스카이워크가 휴식 공간을 이어준다.

차가운 바람에도 야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돔포레스트’도 있다. 상쾌한 바람에 대왕참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보며 돔과고라에서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아름다운 꽃들은 바람에 기대어 흐르고 산책을 나온 가족의 모습은 포근한 느낌을 안겨주는 ‘신비의 정원’,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며 동식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연을 표현한 ‘유토피아’,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폭의 풍경화와 같이 공간을 구성한 ‘빛의 숲’ 등의 공간도 있다.

커뮤니티 역시 거주민만을 위한 8개의 로열라이프를 테마로 7성급 호텔식 수영장, 북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삼식 제공 서비스, 럭셔리 요트투어(추첨제), 프라이빗 상영관 등을 즐길 수 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1 단지 내 분수대 및 조경시설 2 스카이워크 3 빛의 숲 4 캐리비안베이

/전지원 기자